



1. 일반화최소자승법
2. 자기상관
 - (1) 개념 및 유형
 - (2) 검정
 - (3) 해결책

1. 일반화최소자승법

① 고전적 회귀모형과 보통최소자승법

$$Y = X B + U$$

$n \times 1 \quad n \times k \quad k \times 1 \quad n \times 1$

$$Y = \begin{bmatrix} y_1 \\ y_2 \\ \vdots \\ y_n \end{bmatrix}, X = \begin{bmatrix} 1 & X_{21} & X_{31} & \cdots & X_{k1} \\ 1 & X_{22} & X_{32} & \cdots & X_{k2} \\ \vdots & \vdots & \vdots & \ddots & \vdots \\ 1 & X_{2n} & X_{3n} & \cdots & X_{kn} \end{bmatrix}, B = \begin{bmatrix} \beta_1 \\ \beta_2 \\ \vdots \\ \beta_k \end{bmatrix}, U = \begin{bmatrix} u_1 \\ u_2 \\ \vdots \\ u_n \end{bmatrix}$$

- 행렬표현 다중회귀모형에서 기본적인 가정들이 성립하는 고전적 회귀모형의 경우 보통최소자승법(OLS)으로 추정한 추정량은 최량선형불편추정량(BLUE)임을 보인 바 있음

- 여러 가지 기본적인 가정들 중 다음과 같은 교란항의 동분산 (homoscedasticity)과 비자기상관(no autocorrelation)이 대표적인 가정임

$$E(UU') = \begin{bmatrix} E(u_1^2) & E(u_1u_2) \dots E(u_1u_n) \\ E(u_2u_1) & E(u_2^2) \dots E(u_2u_k) \\ \vdots & \vdots \quad \ddots \quad \vdots \\ E(u_nu_1) & E(u_nu_2) \dots E(u_n^2) \end{bmatrix}$$

$$= \begin{bmatrix} \sigma_u^2 & 0 & \dots & 0 \\ 0 & \sigma_u^2 & \dots & 0 \\ \vdots & \vdots & \dots & \vdots \\ 0 & 0 & \dots & \sigma_u^2 \end{bmatrix}$$

$$= \sigma_u^2 I_n$$

②교란항에 대한 가정의 위배

-그러나 현실적으로 위의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

-즉, 자기상관(1차 자기상관)과 이분산(heteroscedasticity)인 경우가 발생

$$E(UU') = \sigma_u^2 \Omega = \frac{\sigma_\epsilon^2}{1-\rho^2} \begin{bmatrix} 1 & \rho & \rho^2 & \dots & \rho^{n-1} \\ \rho & 1 & \rho & \dots & \rho^{n-2} \\ \cdot & \cdot & \dots & \cdot & \cdot \\ \cdot & \cdot & \dots & \cdot & \cdot \\ \rho^{n-1} & \rho^{n-2} & \dots & \cdot & 1 \end{bmatrix} \neq \sigma_u^2 I_n \quad (\text{자기상관(1차 자기상관)})$$

$$E(UU') = \sigma_u^2 \Omega = \sigma_u^2 \begin{bmatrix} k_1^2 & 0 & \dots & 0 \\ 0 & k_2^2 & \dots & 0 \\ \cdot & \cdot & \dots & \cdot \\ 0 & 0 & \dots & k_n^2 \end{bmatrix} \neq \sigma_u^2 I_n \quad (\text{이분산})$$

- 자기상관이나 이분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최소자승법으로 추정하면 추정량은 편의는 없으나 효율적인 추정량이 되지 못함
- 행렬표현 다중회귀모형의 OLS 추정량은 다음과 같음

$$\begin{aligned}\hat{B} &= (X'X)^{-1}X'Y \\ &= (X'X)^{-1}X'(XB + U) \\ &= (X'X)^{-1}X'XB + (X'X)^{-1}X'U \\ &= B + (X'X)^{-1}X'U\end{aligned}$$

- 위 식의 기댓값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게 되어 \hat{B} 은 B 의 불편추정량 (unbiased estimator)이 됨

$$\begin{aligned}E(\hat{B}) &= B + (X'X)^{-1}X'E(U) \\ &= B\end{aligned}$$

-다음으로 $E(UU') \neq \sigma_u^2 I_n$ 인 경우 OLS 추정량의 분산을 구해 보면 다음과 같음

$$\begin{aligned} \text{Var}(\hat{B}) &= E[(\hat{B} - E(\hat{B}))(\hat{B} - E(\hat{B}))'] \\ &= E[(\hat{B} - B)(\hat{B} - B)'] \\ &= (X'X)^{-1}X'E(UU')X(X'X)^{-1} \\ &= (X'X)^{-1}X'\sigma_u^2\Omega X(X'X)^{-1} \\ &= \sigma_u^2(X'X)^{-1}(X'\Omega X)(X'X)^{-1} \end{aligned}$$

- $E(UU') = \sigma_u^2 I_n$ 인 경우 분산은 $\text{Var}(\hat{B}) = \sigma_u^2(X'X)^{-1}$ 으로 이 분산이 Gauss-Markov정리에 의해 최소분산임이 증명되므로 위의 분산은 최소분산이 되지 못함

-결론적으로, 자기상관이나 이분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최소자승법으로 회귀계수를 추정하면 편의는 없으나 효율적인 추정량을 얻지 못하고 통계적 추론에서도 문제가 발생

③ 일반화최소자승법

- 고전적 회귀모형에서 교란항에 대한 기본가정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모형을 기존가정이 충족될 수 있도록 변환하여 최소자승법으로 추정하면 최량불편 추정량을 얻을 수 있음
- 이를 일반화최소자승법 (Generalized Least Squares: GLS) 또는 Aitken의 최소자승법이라고 하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음

첫째, $PP' = \Omega$ 라고 하면 $(P^{-1})'P^{-1} = \Omega^{-1}$ 이 되는데 여기서 P^{-1} 를 L 로 두면 아래의 명제에 의하여 $L'L = \Omega^{-1}$ 을 만족하는 비특이행렬 L 이 존재함.

(명제) 어떠한 대칭양정부호행렬 (symmetric positive definite matrix) Ω 에 대해서 $PP' = \Omega$ 를 충족시키는 비특이행렬 (nonsingular matrix) P 가 존재한다.

둘째, 다음의 회귀모형에 L 을 곱하면 변환하여

$$Y = XB + U$$

$$E(UU') = \sigma^2 \Omega$$

다음과 같은 변환된 회귀모형을 얻음

$$LY = LXB + LU$$

또는

$$Y^* = X^*B + U^*$$

셋째, 변환된 모형의 교란항 평균과 분산을 구함

$$\begin{aligned} \text{(평균)} \quad E(U^*) &= E(LU) \\ &= LE(U) \\ &= 0 \end{aligned}$$

$$\begin{aligned} \text{(분산)} \quad E(U^*U^{*'}) &= \text{Var}(LU) \\ &= E(LUU'L') \\ &= \sigma^2 L\Omega L' \\ &= \sigma^2 LL^{-1}L'^{-1}L' (\because L^{-1}L'^{-1} = \Omega \leftarrow L'L = \Omega^{-1}) \\ &= \sigma^2 I_n \end{aligned}$$

- 변환된 모형의 교란항 평균은 0이고 분산은 자기상관이 되어 있지 않으며 동분산의 조건을 만족하므로 변환된 모형을 최소자승법으로 추정하면 BLUE를 얻을 수 있는데 이러한 방법을 일반화최소자승법(GLS)이라고 함

넷째, GLS 추정량은 변환된 모형을 OLS로 추정하면 구할 수 있음

$$\begin{aligned}\widehat{B}_G &= (X^{*'} X^*)^{-1} X^{*'} Y^* \\ &= (X' L' L X)^{-1} X' L' L Y \\ &= (X^{-1} L^{-1} L^{-1'} X^{-1'}) X' L' L Y \\ &= (X' \Omega^{-1} X)^{-1} X' \Omega^{-1} Y\end{aligned}$$

교란항의 분산 및 회귀계수의 분산에 대한 추정량은 다음과 같음

$$\begin{aligned}\widehat{\sigma}_u^2 &= \frac{e' \Omega^{-1} e}{n - k} \\ \text{Var}(\widehat{B}_G) &= \widehat{\sigma}_u^2 (X' \Omega^{-1} X)^{-1}\end{aligned}$$

2. 자기상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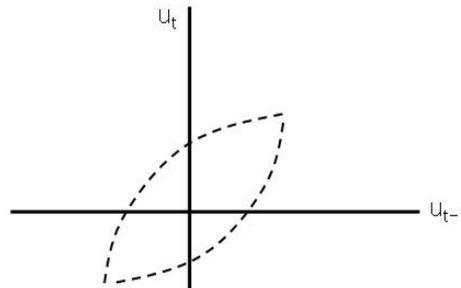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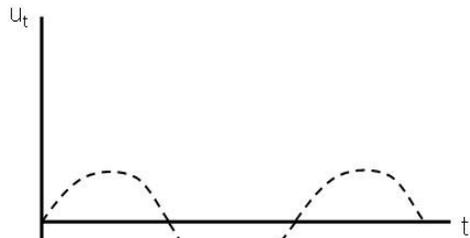
(1) 개념 및 유형

- 경제시계열의 경우 과거 값이 현재에 영향을 주고 현재 값이 미래에 영향을 주어 추세나 순환현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음
- 이러한 현상을 보이는 이유는 경제에 외부충격(예상치 못한 변화)이 주어졌을 때 그 충격의 영향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때문임
- 시계열에 있어 t기의 교란항의 값인 u_t (이를 예상치 못한 변화로 해석)이 t-1기의 교란항의 값인 u_{t-1} 와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를 계열상관(serial correlation) 또는 자기상관(autocorrelation)이 있다고 하며 특히, 이 경우를 1차 자기상관(first-order autocorrelation)이라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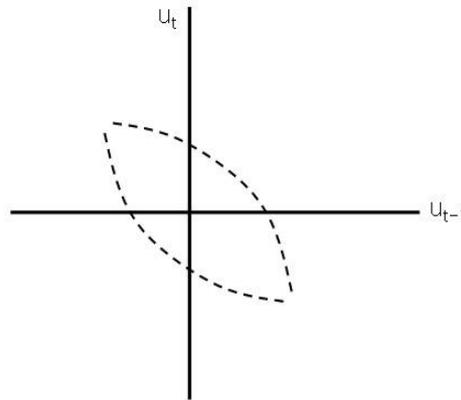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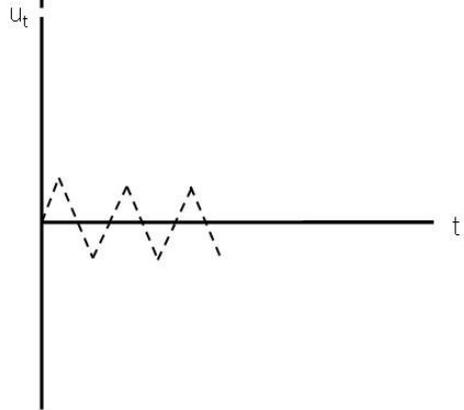
$$Y_t = X_t B + u_t$$

$$u_t = \rho u_{t-1} + e_t$$

- 자기상관의 유형에는 양의 계열상관(positive autocorrelation) 및 음의 계열상관(negative autocorrelation)이 있으며 그 유형은 그림과 같음



(양의 자기상관)



(음의 자기상관)

(2)검정

-시계열의 자기상관 여부를 탐지하는 방법으로는

- 그래프 분석(residual plotting): 회귀식으로부터 도출된 잔차를 그려 보아 자기상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
- 통계적 검정: Durbin-Watson 검정방법, LM(Lagrange Multiplier) 검정방법

①그래프분석

-자기상관을 탐지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잔차에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지를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는 것인데 잔차가 위의 그림과 같은 경향을 보이면 자기상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나 이 방법은 주관적이며, 과학적이지 못함

② Durbin-Watson 검정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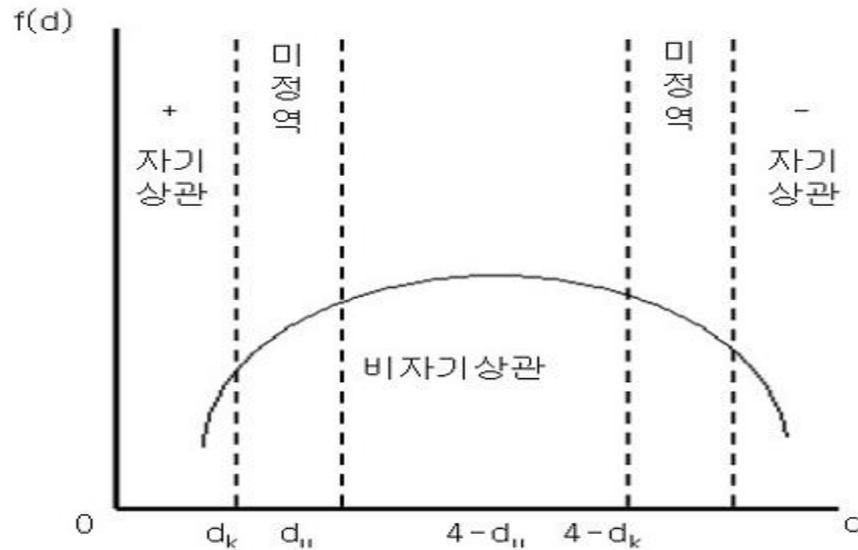
-교란항의 자기상관 여부를 검정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

-d-통계량을 이용

- $\hat{\rho}=0$ 이면 $d \cong 2$ 이므로 d -통계량의 값이 2에 가까우면 자기상관이 없음
- $\hat{\rho}>0$ 이면 $d<2$ 이고, 특히 $\hat{\rho}$ 이 1로 접근할수록 d 는 0으로 접근하므로 d -통계량의 값이 0과 2사이에 있으면 양(+)
의 자기상관
- $\hat{\rho}<0$ 이면 $d>2$ 이고, 특히 $\hat{\rho}$ 이 -1로 접근할수록 d 는 4로 접근하므로 d -통계량의 값이 2와 4사이에 있으면 음(-)
의 자기상관

$$\begin{aligned}d &= \frac{\sum_{t=2}^N (e_t - e_{t-1})^2}{\sum_{t=1}^N e_t^2} \\&= \frac{\sum_{t=2}^N e_t^2 + \sum_{t=2}^N e_{t-1}^2 - 2 \sum_{t=2}^N e_t e_{t-1}}{\sum_{t=1}^N e_t^2} \\&\cong 2(1 - \hat{\rho})\end{aligned}$$

- DW-검정(<부록 4>의 <표 5>)은 1차 자기상관을 검정
- 회귀모형은 상수항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, 회귀모형의 설명변수에 종속변수의 시차변수가 존재하지 않아야 함
- 즉, 자기회귀모형에는 DW-검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때는 h통계량을 이용
- 이 방법은 분포를 이용한 검정방법이라는 장점은 있으나 자기상관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영역(미정영역)이 있다는 단점이 있음



③ LM(Lagrange Multiplier) 검정방법

-이 검정방법은 Durbin-Watson 검정방법의 한계점이나 단점에서 지적한 문제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검정방법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자료의 수가 많을 때 사용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

-(예) 다음과 같은 식에 대한 LM-검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함

$$Y_t = \beta_1 + \beta_2 X_{2t} + \beta_3 X_{3t} + u_t \quad \text{Ⓐ}$$

$$u_t = \rho u_{t-1} + \epsilon_t$$

-제1단계: Ⓐ식의 모형을 추정한 후 다음과 같은 잔차를 구함

$$\hat{u}_t = Y_t - \hat{\beta}_1 - \hat{\beta}_2 X_{2t} - \hat{\beta}_3 X_{3t} \quad \text{Ⓑ}$$

-2단계: Ⓑ식에서 구한 잔차를 Ⓐ식에 포함되어 있는 설명변수와 \hat{u}_{t-1} 에 대해 다음 식과 회귀모형을 추정하는데 이를 보조회귀식 (auxiliary regression)이라고 함

$$\hat{u}_t = \alpha_1 + \alpha_2 X_{2t} + \alpha_3 X_{3t} + \rho \hat{u}_{t-1} + v_t$$

-이 경우 검정하고자 하는 귀무가설은 $H_0: \rho = 0$ 즉, 자기상관이 없다는 것이며 귀무가설 하에서 다음의 LM 검정통계량과 그 분포를 구할 수 있음

$$LM = nR^2 \sim \chi_1^2$$

단, n 은 관측치의 수, R^2 는 보조회귀식에서의 결정계수이며 χ^2 -분포의 자유도는 1임

(3) 해결책

- 원자료(original data)를 적당한 방법으로 변환시켜 고전적 회귀모형의 기본 가정에 맞도록 한 후 OLS로 추정하면 됨
- 그러면 원자료를 어떻게 변환시킬 것인가?
- 이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하여 교란항이 1차 자기상관이 있을 경우 교란항의 분산-공분산행렬(variance-covariance matrix)은 어떻게 생겼는지를 살펴봄

$$u_t = \rho u_{t-1} + e_t$$

$$\text{단, } E(e_t) = 0, \quad E(e_t e_t') = \sigma_e^2 I_n, \quad E(u_{t-1} e_t) = 0$$

- 위 식을 1차 차분방정식(difference equation)이라 하는데 차분방정식을 푸는 방법 중 하나로 연속적인 대입방법(successive substitution)이 있음

-연속적인 대입을 통해 차분방정식을 풀어보면 다음과 같음

$$\begin{aligned}u_t &= \rho u_{t-1} + e_t \\ &= \rho(\rho u_{t-2} + e_{t-1}) + e_t \\ &= e_t + \rho e_{t-1} + \rho^2 u_{t-2} \\ &= e_t + \rho e_{t-1} + \rho^2(e_{t-2} + \rho u_{t-3}) \\ &\quad \cdot \\ &= e_t + \rho e_{t-1} + \rho^2 e_{t-2} + \rho^3 e_{t-3} + \dots \\ &= \sum_{i=0}^{\infty} \rho^i e_{t-i}\end{aligned}$$

-위 식을 이용하여 u_t 의 분산을 구해 보면 다음과 같음

$$\begin{aligned}\text{Var}(u_t) &= \sigma_e^2 + \rho^2 \sigma_e^2 + \rho^4 \sigma_e^2 + \dots \\ &= \sigma_e^2 (1 + \rho^2 + \rho^4 + \dots) \\ &= \frac{\sigma_e^2}{1 - \rho^2} \\ &= \sigma_u^2\end{aligned}$$

$-u_t$ 와 u_{t-j} ($j=1,2,\dots,s$)의 공분산을 구해 보면 다음과 같음

$$\begin{aligned} \text{Cov}(u_t u_{t-1}) &= \rho \sigma_e^2 + \rho^3 \sigma_e^2 + \rho^5 \sigma_e^2 + \dots \\ &= \frac{\rho}{1-\rho^2} \sigma_e^2 \\ &= \rho \sigma_u^2 \end{aligned}$$

$$\begin{aligned} \text{Cov}(u_t u_{t-2}) &= \rho^2 \sigma_e^2 + \rho^4 \sigma_e^2 + \rho^6 \sigma_e^2 + \dots \\ &= \frac{\rho^2}{1-\rho^2} \sigma_e^2 \\ &= \rho^2 \sigma_u^2 \end{aligned}$$

.

$$\begin{aligned} \text{Cov}(u_t u_{t-s}) &= \rho^s \sigma_e^2 + \rho^{(s+2)} \sigma_e^2 + \rho^{(s+4)} \sigma_e^2 + \dots \\ &= \frac{\rho^s}{1-\rho^2} \sigma_e^2 \\ &= \rho^s \sigma_u^2 \end{aligned}$$

-교란항의 분산-공분산 행렬은 다음과 같음

$$\begin{aligned}
 E(UU') &= \begin{bmatrix} E(u_1^2) & E(u_1u_2) & \dots & E(u_1u_n) \\ E(u_2u_1) & E(u_2^2) & \dots & E(u_2u_n) \\ \vdots & \vdots & \ddots & \vdots \\ E(u_nu_1) & E(u_nu_2) & \dots & E(u_n^2) \end{bmatrix} = \sigma_u^2 \begin{bmatrix} 1 & \rho & \rho^2 & \dots & \rho^{n-1} \\ \rho & 1 & \rho & \dots & \rho^{n-2} \\ \vdots & \vdots & \vdots & \ddots & \vdots \\ \rho^{n-1} & \rho^{n-2} & \dots & \dots & 1 \end{bmatrix} \\
 &= \frac{\sigma_e^2}{1-\rho^2} \begin{bmatrix} 1 & \rho & \rho^2 & \dots & \rho^{n-1} \\ \rho & 1 & \rho & \dots & \rho^{n-2} \\ \vdots & \vdots & \vdots & \ddots & \vdots \\ \rho^{n-1} & \rho^{n-2} & \dots & \dots & 1 \end{bmatrix} = \sigma_e^2 \begin{bmatrix} \frac{1}{1-\rho^2} & \frac{\rho}{1-\rho^2} & \dots & \frac{\rho^{n-1}}{1-\rho^2} \\ \frac{\rho}{1-\rho^2} & \frac{1}{1-\rho^2} & \dots & \frac{\rho^{n-2}}{1-\rho^2} \\ \vdots & \vdots & \ddots & \vdots \\ \frac{\rho^{n-1}}{1-\rho^2} & \frac{\rho^{n-2}}{1-\rho^2} & \dots & \frac{1}{1-\rho^2} \end{bmatrix} \\
 &= \sigma_e^2 \Omega
 \end{aligned}$$

-위 Ω 로부터 다음과 같이 Ω 역행렬을 구할 수 있음 (이는 $\Omega\Omega^{-1} = I$ 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)

$$\Omega^{-1} = \begin{bmatrix} 1 & -\rho & 0 & \dots & \dots & 0 \\ -\rho & 1+\rho^2 & -\rho & \dots & \dots & 0 \\ \dots & \dots & \dots & \dots & \dots & \dots \\ \dots & \dots & \dots & 1+\rho^2 & -\rho & \dots \\ 0 & 0 & \dots & -\rho & 1 & \dots \end{bmatrix}$$

-위 식으로부터 다음의 L행렬을 구할 수 있음 ($L L = \Omega^{-1}$ 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)

$$L = \begin{bmatrix} \sqrt{1-\rho^2} & 0 & 0 & \dots & \dots & 0 \\ -\rho & 1 & 0 & \dots & \dots & 0 \\ \dots & \dots & \dots & \dots & \dots & \dots \\ \dots & \dots & \dots & 1 & 0 & \dots \\ 0 & 0 & \dots & -\rho & 1 & \dots \end{bmatrix}$$

-L을 이용하여 원래자료를 변환시키면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를 다음과 같이 변환할 수 있는데 이를 Paris-Winstern 변환이라 함

$$y_1^* = \sqrt{1 - \rho^2} y_1$$

$$y_t^* = y_t - \rho y_{t-1} (t \geq 2)$$

$$x_1^* = \sqrt{1 - \rho^2} x_1$$

$$x_t^* = x_t - \rho x_{t-1} (t \geq 2)$$

-다음의 모형을 예로 들어 원자료를 변환시키는 방법을 살펴보면

$$Y_t = \beta_1 + \beta_2 X_{2t} + \beta_3 X_{3t} + u_t \quad \text{Ⓐ}$$

$$u_t = \rho u_{t-1} + \epsilon_t$$

-먼저 Ⓐ식을 한 기간 이전의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음.

$$Y_{t-1} = \beta_1 + \beta_2 X_{2t-1} + \beta_3 X_{3t-1} + u_{t-1}$$

-위 식의 양변에 ρ 를 곱한 후 Ⓐ식에서 빼면 다음 식과 같게 되는데 이를 Cochrane-Orcutt 변환(transformation)이라고 함

$$Y_t - \rho Y_{t-1} = \beta_1(1 - \rho) + \beta_2(X_{2t} - \rho X_{2t-1}) + \beta_3(X_{3t} - \rho X_{3t-1}) + \epsilon_t$$

$$\epsilon_t = u_t - \rho u_{t-1}$$

-위 식에서 $\beta_1^* = \beta_1(1 - \rho)$ 라 표기하면 다음 식과 같음

$$Y_t^* = \beta_1^* + \beta_2 X_{2t}^* + \beta_3 X_{3t}^* + \epsilon_t$$

단, $Y_t^* = Y_t - \rho Y_{t-1}$, $X_{2t}^* = (X_{2t} - \rho X_{2t-1})$, $X_{3t}^* = (X_{3t} - \rho X_{3t-1})$

-위 식의 추정방법은 두 가지임

① ρ 를 알고 있는 경우

- $Y_t^* = Y_t - \rho Y_{t-1}$, $X_{2t}^* = (X_{2t} - \rho X_{2t-1})$, $X_{3t}^* = (X_{3t} - \rho X_{3t-1})$ 를 구한 후 OLS로 추정하면 되는데 이를 GLS추정량이라고 함

② ρ 의 값이 알려져 있지 않을 경우

- ρ 을 추정한 후 자료를 변환하고 OLS를 적용하는데 ρ 값을 추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음

(1) Durbin의 2단계 추정법

-1단계 : Cochrane-Orcutt 변환(transformation) 식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 식이 되는데 이를 OLS로 추정하여 $\hat{\rho}$ 를 얻음

$$Y_t = \rho Y_{t-1} + \beta_1 + \beta_2 X_{2t} - \beta_2 \rho X_{2t-1} + \beta_3 X_{3t} - \beta_3 \rho X_{3t-1} + \epsilon_t$$

-2단계 : 1단계에서 구한 $\hat{\rho}$ 으로 ρ 를 알고 있는 경우처럼 $Y_t^*, X_{2t}^*, X_{3t}^*$ 를 구한 후 OLS로 추정하면 되는데 이를 FGLS추정량이라고 함

(2) Cochrane-Orcutt의 2단계 절차

-1단계 : ㉠식을 OLS로 추정하여 \hat{u}_t 를 얻고 다음으로 $\hat{u}_t = \rho \hat{u}_{t-1} + e_t$ 의
회귀모형을 OLS로 추정하여 $\hat{\rho}$ 을 얻음

-2단계 : $\hat{\rho}$ 을 이용하여 ρ 를 알고 있는 경우처럼 $Y_t^*, X_{2t}^*, X_{3t}^*$ 를 구한 후
OLS로 추정하면 되는데 이를 FGLS추정량이라고 함

(3) Cochrane-Orcutt의 반복절차

-1단계: ①식을 OLS로 추정하여 잔차 \hat{u}_t 를 구한다.

-2단계: 1단계에서 추정된 잔차를 이용하여 다음 식을 OLS로 추정하여 $\hat{\rho}$ 을 구하는데 이를 ρ 의 1단계 추정치라고 함

$$\hat{u}_t = \rho \hat{u}_{t-1} + e_t$$

-3단계: 2단계에서 추정된 $\hat{\rho}$ 을 이용하여 ρ 를 알고 있는 경우처럼 $Y_t^*, X_{2t}^*, X_{3t}^*$ 를 구한 후 OLS로 추정하여 $\hat{\beta}_1^*, \hat{\beta}_2^*, \hat{\beta}_3^*$ 을 구함

-4단계: $\hat{\beta}_1^*, \hat{\beta}_2^*, \hat{\beta}_3^*$ 을 이용하여 다음의 새로운 잔차를 구함

$$\hat{u}_t^* = Y_t - \hat{\beta}_1^* - \hat{\beta}_2^* X_{2t} - \hat{\beta}_3^* X_{3t}$$

-5단계: 새로운 잔차를 이용하여 다음 식을 OLS로 추정하여 새로운 1차 자기상관계수($\hat{\rho}$)를 구하는데 이를 ρ 의 2단계 추정치라고 함

$$\hat{u}_t^* = \rho \hat{u}_{t-1}^*$$

-6단계: 위의 과정을 다음의 수렴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반복

$$|\hat{\rho}_j - \hat{\rho}_{j+1}| < 0.005$$

단, 0.005를 수렴한계치 (convergence limit)라고 함